

Transport Valuechain Daily



2023. 3. 16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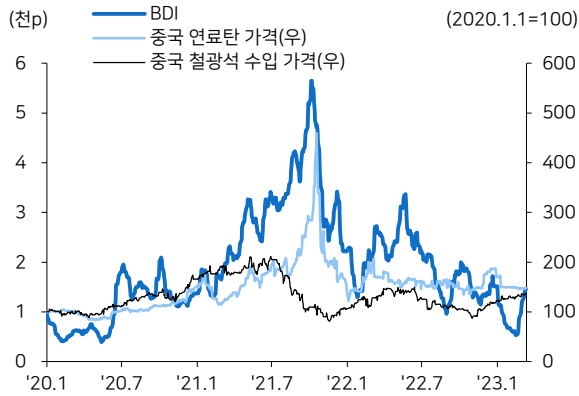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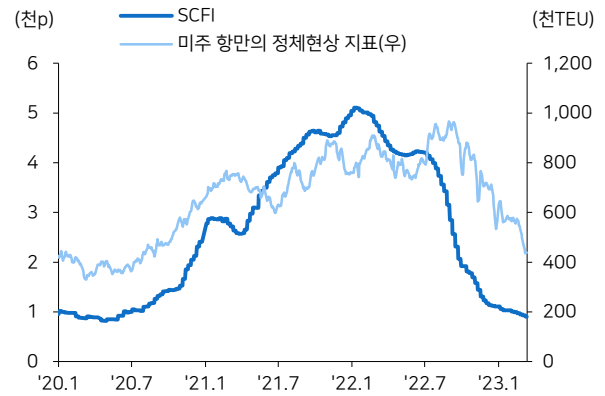
02. 6454-4873
junga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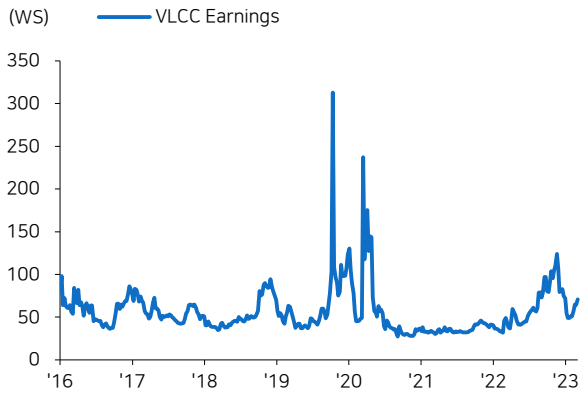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603.0p(+16.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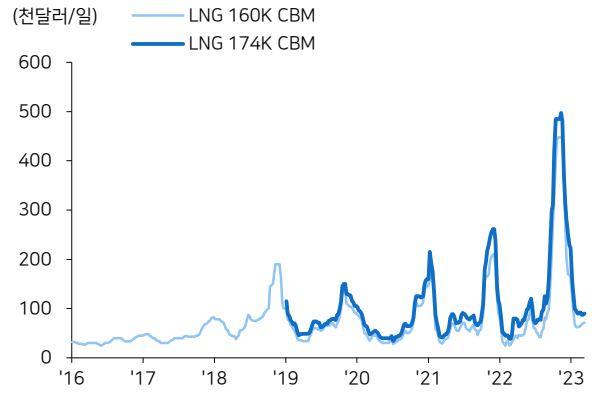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906.6p(-24.5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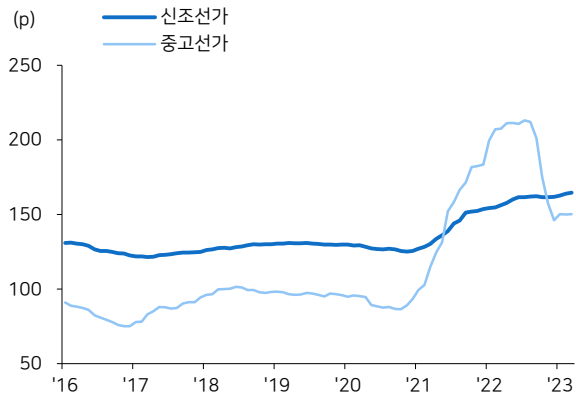
VLCC Spot Rate 92.8p(+22.0p WoW)



LNG Spot 운임 71.3천달러(+1.3천달러 WoW)
90.0천달러(+2.5천달러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4.6p(+0.3p WoW)
150.3p(-0.8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668.0달러(-49.0달러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의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초대형유조선 시황 강세 지속...용선료 10만弗 돌파

VLCC 시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됨. 13일 기준 중동-중국 항로 운임지수(WS)는 97으로, 환산 일일 용선료는 VLSFO 기준 9만달러로 전주대비 3.5만달러이상 올랐다고 언급됨. 손익분기점 3만달러를 3배 이상 웃도는 수준으로 유조선사들의 고수익 기조가 이어질 전망으로 언급됨. 2월 중순부터 미국의 원유 수출 증가, 중국 수요 회복에 따라 VLCC 용선시장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됨. (코리아쉬핑가제트) (<https://bit.ly/3ldb947>)

ONE doubles orderbook with 10 new "state-of-the-art" large container ships

컨테이너 운임 하락에도 ONE이 Neo-panamax급 컨테이너선 10척을 발주했다고 보도됨. 13,700TEU급 메탄올, 암모니아 레디 컨테이너선으로 2025~26년 중 인도될 예정임. 선가 및 조선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브로커들은 일본 Nihon Shipyard로 추정함. (Tradewinds) (<http://bit.ly/3YL0zix>)

Russia aims to triple its LNG production by loosening Gazprom's grip on exports

러시아 정부가 Gazprom을 통하지 않는 천연가스 수출을 허용해주는 방식을 통해 북극 가스전 개발을 추진하려 한다고 보도됨. 황량한 북극지역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높아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함. 개정안이 통과되면 러시아의 LNG 생산량은 2030년 100MTPA로 현재대비 약 3배 늘어날다고 언급됨. (Upstream) (<http://bit.ly/3YQf58X>)

TotalEnergies to sanction \$6 billion Angolan project in June

TotalEnergies가 앙골라 해상 Cameia-Golfinho 프로젝트 FID를 2023년 중순까지 내릴 계획으로 보도됨. 기존 계획에서 6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다고 알려짐. FID를 내리기 전 앙골라 정부의 개발 허가(FDP)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됨. 해당 프로젝트는 심해 개발 사업으로 60억달러가 투입되고 첫 원유 생산은 2026년이 될 계획으로 알려짐. FID가 결정되면 FPSO 계약이 이어질 전망으로 알려짐. (Upstream) (<http://bit.ly/3yC7TCD>)

YPF and Petronas to sanction big Argentine LNG project next year

YPF-Petronas가 2024년 하반기 수십억달러규모 아르헨티나 가스전 개발 FID를 내릴 계획으로 보도됨. 1단계 개발은 5MTPA 규모로 약 40~50억달러가 투입될 예정임. 5단계 개발이 완료되면 총 25MTPA가 생산될 예정임. (Upstream) (<http://bit.ly/3Fkybbh>)

CJ대한통운, 알리익스프레스 국내 택배 확대...3~5일내 배송

CJ대한통운이 알리바바그룹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배송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보도됨. 길게는 1~2주 가량 소요되던 해외직구 상품을 3~5일내로 받을 수 있게 단축될 예정임. (연합뉴스) (<http://bit.ly/3mUHxh>)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